

# 광주 서·남·광산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대구 중구·대전 서구 유성구도 포함  
“주변시세 105% 안넘어야” 고분양가 심사기준 적용

광주 서구 한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광주 아파트시장을 쭈뼛 뽐내는 후폭풍으로 작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서구·남구·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외 대구 중구, 대전 서구·유성구도 포함됐다. 지난 상반기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대전·대구·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광주는 최근 기형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았다. 5월 말 분양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

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2만 원으로 광주 전체 평균에 비해 472만 원이나 높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신세계건설은 농성동에 3.3㎡당 평균 2367만 원의 ‘빌리브 트레비체’를 내놨다. 고분양가는 남구로도 이어져 분선동 ‘남양휴튼 엘브이저’는 3.3㎡당 2375만 원으로 2주일 만에 또 다시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광주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서울 등 타 지역 ‘큰손’들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등 타 시도 사람이 광주 아파트를 거래한 건수는 2306호

에 달했다. 이같은 고분양가 문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박탈감을 키운다. 이 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25개 모든 자치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대구·대구 수성구, 세종시였다. HUG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가 정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앞서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6.66 (+6.08)	↑ 금리 (국고채 3년)	1.42 (+0.01)
↑ 코스닥	681.17 (+4.08)	↑ 환율 (USD)	1179.20 (+5.70)

### 신임 광주국제청장에 박석현 씨



신임 광주지방국제청장에 박석현(53·사진) 서울지방국제청 조사3국장이 임명됐다. 국제청은 12일 국제청 차장과 서울청·부산청·광주청장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영암 출신인 박 신임 광주청장은 석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제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 직위를 지냈다. 박 청장은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대재산가 등의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청 서열 2위인 신임 차장에는 김대지 부산지방법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서울청장에는 김명준 국제청 조사국장, 부산청장에는 이동신 대전청장, 대전청장에는 한재연 국제청 징세법무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오창수(가운데) 한전 특허부장 등이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발명품 2종 ‘美 실리콘밸리 전시회’ 금상·특별상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의 발명품 2종이 미국 ‘2019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수상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달 24~26일 미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전시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2개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발명품전시회(IFIA)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미국, 중국, 대만, 사우디 등 14개국이 참가해 125점을 출품했다. 한전은 ‘지중 전력구 감시장치’(금상·국제 발명품협회 특별상 등)와 ‘활선상 태 현수자 실시간 절연성능 진단장비’(중국 발명품 협회 특별상 등)를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자율주행 모노레일의 열화상카메라 장비에 장착되는 ‘지중 전력구 감시장치’는 연중 24시간 지중 전력구 설비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절연성능 진단장비’는 가공 송전선로 예자의 절연저항을 측정해 절연성능을 진단하는 장비이다. 대회에서 이 장비는 높은 진단 정밀도를 인정받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지역 증기 41%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 나쁘다”

납품 물량감소·낮은 단가 원인 증기중앙회 130개사 애로 설문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30개사를 대상으로 ‘2분기 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 41.6%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좋다’는 답변은 2.2%에

그쳤고, 나머지(56.2%)는 ‘동일하다’고 답했다. 동반성장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한 원인은 ‘납품 물량 감소’가 50.7%로 가장 많았고, ‘낮은 납품단가’(35.9%)가 뒤를 이었다. 10곳 중 7곳(73.1%)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되려면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 반영’(50.0%), ‘원재료 등 재료비 변동분 반영’(36.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반성장 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39.1%)이 가장 먼저 꼽혔고 ▲납품 물량 보장(34.0%) ▲중소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19.4%) ▲공정거래 준수(7.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31.5%)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26.8%) ▲지역산업 다변화 및 신규 대기업 유치(16.1%)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11.4%) ▲대기업 해외 이전 방지(11.4%) 등이 제시됐다. 자사의 경영상황이 ‘나쁘다’는 답변은 64.6%에 달했고, ‘좋다’는 5.4%에 그쳤다.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국내 수요 감소’(53.2%·복수 응답)를 먼저 꼽았고, 인건비 상승(20.2%), 자금조달 곤란(12.0%), 업체간 과당경쟁(5.1%)이 뒤를 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3호점 선정식

용봉동 푸른숲그룹홈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0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푸른숲그룹홈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3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3호점으로 선정된 푸른숲그룹홈은 경제적 빈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이다. 이날 광주은행은 가구와 학습용 책걸상을 새로 교체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

어 주었다. 이후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이 준비해간 간식을 아동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은행 이준우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이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내일 광양항 입항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스위스 ‘엠에스씨 굴슨(MSC GULSUN)’호가 광양항에 기항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스위스 MSC사의 최신 선박인 엠에스씨 굴슨(MSC GULSUN)호가 14일 광양항에 처음으로 입항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선박은 MSC가 삼성중공업에 수주한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인도선박이다. 길이 400m, 폭 61.5m에 20피트(ft) 컨테이너 2만3756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이다. 특히 굴슨호는 스케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당면 과제인 환경적 측면과 차세대 기술이 탑재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